

대체거래소 설립 급물살... 정착위한 제도적 보완은 하세월

금융투자협회 'KATS' 상표 출원 연내 법인 설립 절차 마무리 계획
한국거래소 독점시스템 막 내리고
주식 매매체결 등 경쟁 체제 구축
시장감시 등 이해상충 문제 발생
정보 비대칭, 공정경쟁 불가 우려

금융투자협회가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상표 출원을 마치고 연내 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체거래소 경쟁 체제가 보편화된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미비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월 1일 특허청에 'KATS(한국대체거래시스템·Korea Alternative Trading System)'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한국 다자간매매 체결회사'와 '한국대체거래소'도 출원

을 마쳤다. 이르면 2개월 내 심사가 마무리되는 우선심사제도를 요청해 연내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지난 1956년 이래로 이어진 한국거래소 독점 시스템이 막을 내리게 된다. 대체거래소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로 금융회사들이 전자거래를 기반으로 설립하는 증권거래 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매매 체결 외에도 시장감시 기능, 상장 심사 역할을 수행한다. 단, 대체거래소는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중점으로 둔다.

국내 대체거래소 설립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15년 이상 뒤쳐진 상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대체거래소는 총 62개다. 미국 대체거래소의 상장주식 점유율(거래대금 기준)은 2020년 기준 전체 시장의 11.3%에 달했다. 유럽의 경우 2020년

기준 총 142개의 대체거래소를 보유 중이다. 상장주식 점유율도 전체 시장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대체거래소의 국내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대체거래소의 최저 자기자본이 투자중개업 200억원 또는 투자매매업 300억원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별도의 설립 요건이 없으며, 일본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3억엔(약 31억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맹주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대체거래소 설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 요건과 주식소유제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매수에 대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5% 이상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를 해

야 하는데, 공개매수 요건은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참여를 저해하며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기능을 담당할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여러개일 경우 이론상 제3의 독립기관이 시장감시기능을 담당하는 게 맞다"며 "또 기존 거래소가 대체거래소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앞서 2024년 업무 개시를 목표로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7개 증권사(미래에셋·삼성·NH·한국·KB·키움·신한금융투자)가 ATS설립위원회를 만들었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예비인가를 신청한다는 예정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대체거래소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작업을 완료하고, 2024년 초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간 경쟁 체제가 구축될 경우 투자자들은 낮은 수수료율, 야간 매매, 거래소간 아비트리지(Arbitrage·차익거래)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제도에 나서며 대체거래소에서 증권형 토큰(STO),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 자산수탁 및 지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주식과 증권예탁증서(DR)만 거래가 가능한 대체거래소에서 증권형 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이 허용될 시 부동산, 예금, 적금 등 전통적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 결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신작 'P의 거짓' 성공 기대감... "200만장 판매 가능성"

metro 관심종목

네오위즈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도 긍정적
추석 성수기 효과에 매출증가 예상



P의 거짓. /네오위즈

네오위즈가 차기작 'P의 거짓'의 기대감 속에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3분기부터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네오위즈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750원(4.44%) 하락한 3만7650원에 장을 마쳤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혜주로 주목받은 을 들어 분위기가 뒤바뀌면서 동반 약세가 이어졌다. 특히 네오위즈는 연초부터 지난 5월까지 꾸준히 하락하면서 1만8900원선까지 밀렸다. 그러나 이후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

난달부터 3만원선을 웃돌았다. 지난달 29일에는 하루에만 12% 이상 급등했으며, 이달 1일에는 장중 한때 52주 최고가인 4만2750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최근 급등세의 배경으로 세계 3대 게임축제 게임스컴에서 공개한 신작 'P의 거짓'이 수상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P의 거짓은 게임스컴 어워드 2022에서 최고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포함해 총 3개의 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해 열린 시상식에서 동일

(증권사별 네오위즈 목표주가) (원)

증권사	목표주가	직전목표주가
NH투자	44000	34000
삼성	43000	31000

/각사

한 상을 수상한 게임이 올초 출시와 함께 큰 흥행에 성공한 점을 감안하면 P의 거짓 역시 높은 판매량이 기대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프롬소프트가 개발한 '엘드링'은 지난해 게임스컴 2021에서 최고 액션 어드벤처 게임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월 출시 이후 4개월 동안 1660만장을 판매했다"며 "P의 거짓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의 출시를 내년 3분기로 내다보면서, 2023년 210만장·누적 250만장 판매를 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플랫폼 수수료와 마케팅 등을 감안해 이익 기여는 200만장

판매 시 매출액 약 1000억원, 영업이익 500~6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엘드링 출시 이후 높아진 장르에 대한 시장 관심과 게임즈컴에서 인정받은 완성도를 감안하면 연간 200만장 수준의 판매량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증권가는 네오위즈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 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목표주가를 1만원 이상씩 높이면서 각각 4만 4000원, 4만 3000원을 제시했다.

더불어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로 안정적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오동환 연구원은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 지난 7월 매출이 전달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9월 추석 성수기 효과까지 감안하면 3분기 웹보드게임 매출이 전분기 대비 10%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석 기자 ysl@

분양 캘린더

'천안롯데캐슬더청당' 조감도. /롯데건설

전국 16개 단지서 1만103가구 분양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 총 1만103가구(일반분양 676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우미린클래스원', 충남 천안시 청당동 '천안롯데캐슬더청당', 강원 원주시 관설동 '힐스테이트원주레스티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다음 주에는 견본주택의 오픈 일정이 없다.

우미건설은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7블록에서 '검단신도시우미린클래스원'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 총 875가구 규모다. 단지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과 수도권 진출입이 편하고,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102역사 신설 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서 '천안롯데캐슬더청당'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1개동, 전용면적 59~99㎡, 총 1199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청당동 일대는 청수행정타운과 청당지구를 중심으로 용곡지구, 청룡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남부대로, 천안대로를 통해 천안 전역으로 이동이 편하고 논산천안고속도로 남천안 IC에 진입도 수월하다.

/김대환 기자

SK에코플랜트, 삼강엠앤티 자회사 편입

SK에코플랜트가 해상풍력하부구조물 제작기업 삼강엠앤티의 인수를 완료하며 미래 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4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삼강엠앤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의 대금을 납입하며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한 이승철 SK에코플랜트 W프로젝트 총괄 담당임원을 삼강엠앤티의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삼강엠앤티는 지난 2008년 코스닥에 상장한 후유강관, 조선, 플랜트 구조물



이승철 대표이사(사진)는 토목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술 견적 및 리스크 관리 전문가다. 연구개발(R&D) 및 신사업개발 부서와 기술영업담당 임원을 거쳐, 지난 1월 W프로젝트(삼강엠앤티 인수 추진) 총괄로 부임했다. /김대환 기자

제작기업이다. 경남 고성에 93만㎡ 규모의 야드 및 접안부두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해상풍력터빈 하부구조물 제조역량도 보유하고 있다.

이승철 대표이사(사진)는 토목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술 견적 및 리스크 관리 전문가다. 연구개발(R&D) 및 신사업개발 부서와 기술영업담당 임원을 거쳐, 지난 1월 W프로젝트(삼강엠앤티 인수 추진) 총괄로 부임했다. /김대환 기자

상장사들,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 부양

올해 자사주 소각 상장사 39건
포스코홀딩스 6722억 수준 소각

올 들어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내 증시가 약세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상장사들은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자사 주식을 매입해 없애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식이 소각되면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에서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상장사는 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은 12건으로 두 달 만에 올 상반기(27건) 절반 수준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7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반기에 소각 규모가 가장 컸던 상장사들을 살펴보면 1위는 포스코홀딩스로 지난달 12일 261만5605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6722억원 수준이다.

/원관희 기자 wkh@